

목양 칼럼

위로

2023년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면서 이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기 침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등 많은 일들이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장에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위로는 모든 것이 평탄한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1절 사이에 '환란'이나 '고난'이란 말이 8번 나오고,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환란만 있다면 살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란이 넘치면 위로도 그만큼 넘치게 부어 주시기에 살 소망이 생깁니다.

지난 주에는 어느 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평소 예로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몇 주 전부터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서 가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런 소식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성탄절인 12월 25일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만큼 상실의 아픔을 큰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두 딸님에게 가장 큰 위로는 유치부와 목장인 것을 보았습니다. 목장에서는 아버님이 건강을 위해 기도 제목으로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울어주며 안아주고 위로하는 모습이 마음에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유치부 교사들도 하관예배까지 함께 하며 아직 뭔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젊은 엄마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CCM에서도 바쁜 일과 중에도 함께 참여하며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위로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 가치가 더욱 클 것입니다. 위로는 고난 받아 본 사람이 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유족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함께 나누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족들은 받은 위로와 사랑으로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면 지금의 슬픔은 더욱 값진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얻었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도 희망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CCM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VISION 2023 DISCIPLESHIP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송년주일)

제 32권 53호 주후 2023년 12월 31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홍정자목사	오세준목사	백에스라목사
예배의 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301장		
기도	박제진집사	정수영장로	박경구장로
성경봉독	마(Mt.) 15:21-28		
찬양	유년부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부스러기 은혜 김중훈목사		
찬송	490장		
봉헌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 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1월 3일 오후 8:30

- 기도: 천매자권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이연희권사

새벽기도회(신년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강호정집사
- 2부: 박성우장로
- 3부: 김현수장로

12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박지숙권사
- 3부: 강희선집사, 노애라집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예배:** F.M.A. 성경공부 '스바냐, 학개'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존직 은퇴식(3부예배)**
 - * 은퇴안수집사 : 권철훈집사
 - * 은퇴권사 : 심성실권사
- **2024 찬양위원회 임명식:** 글로리아 찬양대 - 2부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 3부예배
- **전도 및 평삼주오 시상:** 수상자는 부목사실에서 상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지 참조)
- **유아세례증서 수령:** 성탄절 유아세례 받으신 가정, 부목사실에서
- **정책당회:** 3부예배 후 사랑방
- **송구 영신 예배:** 12/31(오늘) 오후 11시, 본당 (신년기도소원카드 제출)
- **예결산위원회:** 1/5(금), 오후 7시 30분, 친교실
 - * 위원: 시무장로, 재정부원, 도부용집사, 이진배집사, 강미혜권사, 손지현권사
- **12월 성경 통독 및 다독자 보고:** 각 목장별로 1/5(금)까지 부목사실로 보고
- **CCM Winter Retreat:** 1/5(금)-7(주), Spruce Lake Retreat Center, Canadensis, PA.
- **맨하탄 전도사역:** 1/6(토), 오전 9시 교회, 9시 40분 베이사이드 (문의: 박성하목사, 김영애권사)
- **신년 절기행사**
 - * 신년감사예배: 1월 7일 (주일)
 - * 제직, 사역부, 교사 임명
 - * 신년감사헌금: (예산 \$ 30,000)
 - * 떡국잔치(섬김: 2선교회)
 - *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시 30분) 주제: 천로역정(존 변연)과 함께

2(화)	3(수)	4(목)	5(금)	6(토)
교역자/교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2선교회

- **2024 교회생활 지침서 주소록 변경 신청:** 부목사실
- **감사의 떡 대접:** 권정래집사(장례 감사)
- **강단꽃 장식:** 심성실권사(한 해 감사) 김선태집사&구본원권사(하늘생일)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김광균장로 다음주: 송광수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1마을 다음주: 2선교회
 - 2024년 강단 꽃 및 사랑의 식탁 신청: 본당 뒤편 게시판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11am Service Only. Zoom QR Code:



성령의 기름부으심(사 61:1-11)

1. 예수님은 왜 오셨나?

성령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기름을 부으신다. 메시아가 오신 사명은 무엇인가?

- 1)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 가난한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희망이 없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부자에게는 메시아가 필요없다.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다.
- 2)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 오셨다.
살면서 경험하는 불행이나 충격 때문에 두려움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말한다. 사람은 못 고친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치신다. 고친다는 것은 상처를 싸매는 일이다.
- 3)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노예생활하는 자들을 풀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 중독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오셨다.

2.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2절).

- 1) 은혜의 해는 희년이다.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가난해서 빼앗긴 기업을 되찾고, 빚 때문에 팔려간 자식이 돌아 온다. 한 마디로 은혜의 해의 핵심은 회복이다. 이 날은 악의 세력에게는 복수의 날이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요일 3:8).
- 2) 은혜의 해의 결과는 인생 역전이다.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오셨다.
- 3) 예수님은 자리시던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이사야의 글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은 읽으시고 이 말씀이 듣는 자의 귀에 응하였다고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첫 사역이었다(눅 4:16-21).

3. 개인의 회복은 공동체와 사회의 연쇄적 회복을 가져온다(4-11절).

- 1)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 다시 쌓아지고,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 진다.
- 2)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어진다. 즉,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
- 3) 여호와와 복 받은 자손이 된다. 전도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회복을 경험한 간증이다.
- 4) 공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한다.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결론]

성령의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바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18세기에 하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를 통해 이 일을 하셨다. 19세기에는 찰스 피니와 무디 목사님을 통해 이 일을 하셨다. 20세기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 21세기는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불법의 성행 등으로 어느 때보다 더 어둡고 고통스런 시대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누가 21세기에 하나님의 회복 역사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에 이 하나님의 꿈이 응하기를 바란다.

교우동정

- 부친상 박해지집사&한혜수집사 (교 최기원 집사, 12/25)

행사예고

- 01/07(주일) 신년감사예배 (제직/사역부/교사 임명)
신년제직회 (오후 1시 30분)
- 01/14(주일) 예결산 공동의회 (오후 1시 30분)
- 01/14(주일) 뉴욕노회 신년하례회 (오후 5시 30분), 뉴욕 넘치는교회

방송설교

- KRB FM 87.7/94.3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